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전색깔은 보라색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이번 주 예배는 온가족 예배와 함께 성찬식이 있습니다
4. 이제부터 부장을 부서지기, 부장회의를 부서지기 모임, 목자를 목장지기, 목자모임을 목장지기 모임으로 변경해서 부릅니다.
5. 다음 주 예배(3월10일) 직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김경헌 목사 사역 연장건입니다.
6.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5일 : 소정진 6일: 김명화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김보현 / 설교번역: 허민준
- 3월 안내 및 봉사: 어벤저스 목장

*향후 교회 일정

- 3월 정기심방 : 주나 목장
- 전교인 가족캠프: 6월 8-9(토,주), Prairie River Camp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9주)

출 20:1-17 / 시편 19:1-14 / 고전 1:18-25 / 요 2:113-22

교회세운날 2017.6.11

23-09

3월 3일 (사순절 셋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on Zoom
마지막 주 수요일은 목자모임으로 대체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배순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미가 6:6a, 8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위충일 형제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창 1:26-28/눅 3:21-22 ——— 인도자

설교 ——— 덕분에 사는 인생 ——— 김경헌 목사

성찬식 ——— 다같이

봉헌찬송 ——— 198장 주 예수 해변서 (3, 4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헌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좋은 글 / 고생 만았지야

오늘은 김기석 목사님의 책 <일상순례자>에 실린 글귀를 담아 전합니다. 고단한 우리네 삶에 이 글이 잔잔한 위로를 주기 소원하며 옮깁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장엄한 어구로 시작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고백으로 이어진다. 말은 뭔가를 창조한다. 물론 그 말은 발화된 말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눈짓, 혹은 표정 속에 감춰진 말도 포함한다. 지금 우리 시대를 횡행하는 말들이 창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의 본래 목적인 사랑과 이음 대신 불신, 미움, 갈등, 거친 심성, 냉소 등이 아닌가.

모임에서 고두현의 시 “늦게 온 소포”를 함께 읽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은 남해에 계신 어머니가 부쳐 온 소포의 포장지를 뜯으며, 그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매듭에서 주름진 어머니의 손마디를 느낀다. 남루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풍경이 아련칙하게 떠오르는 순간, 시인은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를 소개한다.

큰 집 뒤뜰에 울 유자가 잘 됐다
고 몇 개 파서 너어 보내니
춤을 때 달려 먹거라. 고생 만았지야
봄 벌치 풀리든 또 조흔 일도 안 잇것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다시 봄만 성키 추스르라

모임에서 이 시를 함께 읽은 사람들은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구어체 시어 속에 담긴 것은 어머니의 따사로운 마음이었고, 동시에 든든함이었다. 이 각박한 시대에 듣는 “고생 만았지야”라는 위로의 말은 의례적이 아니기에 더욱 치유의 말로 다가온다. “봄 벌치 풀리든 또 조흔 일도 안 잇것나.” 이 말은 별별 꼴을 다 보며 땅에 엎드려 살아온 노인의 말이기에 더욱 울림이 크다. 철저한 낙관주의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도 이 말 한마디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아들딸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욕망과 욕망의 충돌 굉음 속에서 멎고 찢긴 마음들이 거리를 서성인다. 따스한 말, 진정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서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 잃어버린 살맛을 되찾게 해주는 말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치고 찢긴 이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건넨다. “고생 만았지야.”